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체육 개혁 신호탄' 올해의 톱 뉴스

2024 스포츠 10대 뉴스

연합뉴스가 광주매일신문 등 전국 49개 신문·방송사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세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체육 개혁 요구 분출'이 올해 스포츠뉴스 1위로 꼽혔다. 2024년을 빛낸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를 주요 사진과 함께 게재한다.

〈편집자주〉

1 '작심 발언' 파장...개혁과 변화 'ing'



"제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대표팀한테 조금 많이 실망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이란 은 조금 계속 가기를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8월5일 2024 파리 올림픽 여자단식 금메달을 딴 직후 나온 '배드민턴 퀸' 안세영(삼성생명)의 이 말은 체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줄곧 무릎이 좋지 않았던 안세영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배드민턴 협회를 직격했다.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의 '인자'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내놓은 '작심 발언'은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체를 발칵 뒤집어줬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되짚는 계기가 됐다.

'대한체육회나 경기 단체가 선수를 위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화두는 체육계에 대한 개혁 요구로 이어졌다.

2 파리서 12년 만에 올림픽 최대 성과



양궁에서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왼쪽)과 김유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한체육회는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에 앞서 금메달을 5개 딸 것이라는 예상치를 내놨다.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순위 8위의 대선전이었다.

21개 종목 선수 144명의 '소수 정예'로 참가한 파리 올림픽 선수단은 기대를 뛰어넘어 2008 베이징 대회와 2012 런던 대회에서 달성한 단일 대회 최다인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먼저 양궁 대표팀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세부 종목 5개를 싹쓸이해 '양궁 최강국'임을 재확인했다.

사격에서도 역대 최다 성과인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가 탄생했다. 펜싱에서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땀던 2020 도쿄 올림픽보다 좋은 성적을 냈다.

이처럼 활(양궁)과 총(사격), 칼(펜싱)에서만 금메달 10개가 탄생해 '한국은 전투의 민족'이라는 반응이 외신에서 나오기도 했다.

3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공정성 논란'

2024년 한국 축구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한바탕 흥역을 치러야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홍명보 당시 프로축구 울산 HD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무려 6개월간 진행된 감독 선임 작업의 결과에 외국인 감독을 기대한 대다수 팬은 크게 실망했다.

홍 감독에 대해서는 면접,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감독(홍명보)을 무조건 지지하는 위원들이 많았다.



한국프로야구 2024 KBO리그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우며 프로스포츠 최초 1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10월23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2차전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어떤 외국 감독을 제시하면 무조건 흠을 잡았다"던 박주호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의 유튜브 폭로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거듭된 여론의 질타에 국회와 정부까지 감독 선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이사회 결의 없이 정몽규 회장 지시만으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중도에 감독 선임 작업을 이어받게 하고, 전력강화위원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등 허술한 일처리로 스스로 화를 키웠다.

축구협회가 불투명하고 부패했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져 온 가운데, 홍 감독 선임 논란이 터지면서 정 회장은 무능과 독선의 아이콘이 됐다.

4 프로야구, '꿈의 1천만 관중 시대' 활짝

한국프로야구 KBO리그가 꿈의 '1천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2024년 정규시즌 720경기에 1천88만7천705명의 팬이 야구장을 찾았다.

중전 최다였던 2017시즌 840만688명보다 무려 240만명이나 관중이 증가해 한국 프로스포츠 최초로 관중 1천만명을 돌파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 흥행 가도를 달렸다. LG(139만7천499명), 삼성(134만7천22명), 두산(130만1천768명), KIA(125만9천249명), 롯데(123만2천840명), SSG(114만3천773명) 6개 구단이 홈 100만 관중을 동원했다. kt(84만3천942명), 키움(80만8천350명), 한화(80만4천204명), NC(74만9천58명)도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다.

올해 KBO리그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3월23일 개막전 5경기에 10만3천841명이 입장하며 전 구장 매진으로 흥행의 시작을 알렸다.

6월23일에는 더블헤더를 포함한 8경기에 14만2천660명이 입장해 KBO리그 역대 단일 최다 관중 기록도 세웠다.

불볕더위에 애구팬들은 야구장을 찾았고, 8월18일에 84만7천566명의 'KBO리그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8월28일에는 900만 관중을 돌파하며, 추석 연휴인 9월15일에 1천만 관중을 넘어섰다.

경기에 집중하는 팬, 응원을 즐기는 팬이 모두 야구장으로 향했고, 프로야구단 관계자들도 상상하지 못한 숫자 '1천88만7천705'가 찍혔다.

5 한국축구, 64년만의 아시안컵 우승 좌절



한국 축구는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이강인(파리생제르맹) 등 초호화 공격진을 꾸리고도 우승에 또 실패했다.

1월12일부터 2월10일까지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향한 팬들의 기대는 컸다.

한국은 1900년 제2회 대회 이후 64년 동안이나 아시안컵 트로피와 인연을 맺지 못하던 터였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역대 최강의 멤버를 꾸린 데다 사령탑까지 세계적인 골잡이 출신의 워르겐 클린스만 감독이었다. 한국을 막을 수 있

는 팀은 일본 외에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한국은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하며 탈락했다. 우승 불발의 결과, 그리고 기대치를 한참 밑돈 경기력에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불발기 시작한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론은 준결승 전날 손흥민과 후배 이강인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폭발'해버렸다.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2월16일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다. 1년 만의 결별이었다.

6 KIA, 한국시리즈 불패신화로 'V12'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한국시리즈(KS·7전 4승제)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4승 1패로 따돌리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KIA 타이거즈를 'V12'로 이끈 이범호 감독 <KIA 타이거즈 제공>

KBO리그 최다 우승팀인 KIA는 팀 통산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고 특히 12차례 KS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썼다.

KIA는 해태 시절인 1983년과 1986·1987·1988·1989년, 1991년, 1993년, 1996·1997년 9차례 우승했고, KIA로 바뀐 이후엔 2009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범호 감독은 KS에서도 초보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2005년 선동열 감독, 2011년 류중일 감독(이상 삼성)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취임 첫째 통합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었다.

7 '전방위 압박'에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올해 체육계 최대 화두 중 하나는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를 이끌어 온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 여부였다.

체육계 관련 부조리의 중심에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사유화' 논란, 체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줄곧 우세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다.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계 현안 질의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는 등 외부는 물론 체육회 내부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온 가운데 이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3선의 길을 차근차근 다지는 중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선거 출마 심사를 요청해 지난달 12일 승인받았고, 지난달 26일엔 후보자 등록의 의사표명서를 냈다. 이어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8 인니에 발목,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

한국 축구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후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8강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인도네시아에 패한 선수들이 낙담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한 인도네시아에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 한참 떨어지는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연장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쳤고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단순한 1패가 아니었다. 한국 축구에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부터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았으나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 탈미를 잡혀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은 무산됐다.

선수들은 세계 축구계에 자기 이름을 알릴 기회를 놓쳤고, 메달에 병역 혜택이 걸린 올림픽에 도전조차 못했다.

9 '니킴시 살아야' 슈퍼스타 김도영 신드롬



2024 신한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된 KIA 김도영이 트로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 프로야구는 KIA 타이거즈 3년 차 내야수 김도영(21)의 독무대였다.

김도영은 정규시즌에서 타격 3위(타율 0.347) 득점 1위(143점), 장타율 1위(0.647), 홈런 2위(38개), 최다안타 3위(189개), 출루율 3위(0.420)에 오르며 소속 팀 KIA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다. 그는 역대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최연소·최소경기 100득점과 30홈런-30도루 등 각종 기록을 달성하며 구름 관중을 야구장으로 끌어모았다.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은 연일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뜨거운 인기몰이로 프로야구의 아이콘이 됐다.

각종 야구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엔 김도영과 관련한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쏟아졌다.

KIA의 한 팬은 경기장에서 '도영아 니킴시 살아야'(도영아 너 때문에 산다)라는 문구를 스티커북에 붙여서 응원했고, 이 모습은 팬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10 54세 최경주, KPGA 최고령 챔프 등극

2024년은 '뱅크' 최경주에게 잊지 못할 한 해가 됐다. 1970년 5월생인 최경주는 올해 5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최종 합계 3언더파 281타로 우승했다.



54세 생일날 KPGA SK텔레콤 오픈에서 KPGA 최고령 우승 새역사를 쓴 최경주가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PGA 제공>

자신보다 13살 어린 박상현과 연장전을 치른 최경주는 2차 연장전에서 파를 지켜, 파 퍼트에 실패한 박상현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종전 KPGA 최고령 우승 기록은 2005년 매경오픈에서 최상호가 달성한 52세 4개월이었으며 최경주는 이를 4년 가까이 뛰어넘어 만 54세에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02년 5월 컴백 클래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골프의 역사를 쓴 최경주가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장면을 연출한 순간이었다.

최경주가 KPGA 투어 대회를 제패한 것은 2012년 10월 CJ 인비테이셔널 이후 11년 7개월 만이었다. /연합뉴스